

“어머니 유품 소품 사용, 이번 작품 평생 못잊을 것”

영혼 울리는 진경산수

전남옥괴미술관 5월15일까지 ‘박문수 한국화전’

광주연극제 남녀연기상 부부 연극인 노희설·정경아씨

극단 얼·아리의 작품 ‘발톱을 깎아도’는 힘든 삶 속에서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늙은 노부부의 이야기다. 주인공 대우와 순애 역을 맡아 능청스레 연기한 노희설(48), 정경아(47)씨는 실제 부부다. 이 작품은 최근 막을 내린 제 23회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노씨 부부는 남·녀 연기상을 받았다.

극판에 돌아왔다. 방송일은 생업으로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외도였는데 어느 순간 본업이 연극배우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2012년에는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을 연출하고 직접 제작도 했다.

현재 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 대행진’과 KBC 라디오 ‘빛고를 차차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는 CM 성우로도 오래 활동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어린이극 ‘홍당무’를 통해서다. 정씨는 “낮을 가리는 편인데 남편이 편안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어서 연기하는 게 수월했다”고 했다. 노씨는 “아내가 착하고, 예뻐다”고 기억했다.

두 사람은 1995년 결혼했다. 정씨는 결혼



광주연극제 참가작 ‘발톱을 깎아도’(극단 얼·아리)에서 열연, 남녀 연기상을 받은 정경아·노희설씨 부부.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최우수작품상 ‘발톱을 깎아도’서 노부부 열연

“늘 함께하며 작품 이야기 할 수 있어 큰 도움”

6월 전국연극제 참여 “작품 좋은 평가 기대”

이번이 첫 연기상 수상이었다. “광주연극제 참여는 12년 만이다. 2002년에 노역을 맡아 상을 받았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어렵지만 노인을 연기하는 게 오히려 어렵지 않았다. 사실적 연기로 진짜 인생을 살아온 굴곡을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겁이 나더러. 정경아씨와 함께 캐리커처의 노역을 하기 싫었으니까.”

후에도 연극을 놓지 않았다. 지금은 중학생이 된 딸 여우리가 갔던 아이일 때부터 현장에 데리고 다니며 매년 1~2 작품에는 꾸준히 참여했다. 두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어울리아말로 광주 연극의 산중인”이라고 했다.

이번 작품은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겼다. 작품 속 주인공처럼 오랫동안 아꼈던 노씨 어머니가 연습 중 세상을 떠났고, 장남이며 TV, 선풍기 등 어머니가 사용하던 물건은 고스란히 무대 소품으로 사용했다.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는 연습 당시 겪고 있는 일이라 더 공감이 갔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제작진에게 엄마집에 가자고 했다. 엄마 손때 묻은 세간살이를 무대 로 옮겼다. 엄마가 모아놓은 폐지도 소품으로 사용했다. 엄마는 자식들 다 살만하고, 본인 경제력도 있으신데도 단 1분도 쉬지 않으셨다. 그렇게 살다 가셨다.”

정씨는 “어머니 못까지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마음 아파할까 봐 그건 싫다고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함께 자리한 양정인 연출은 “연기

를 잘하는 배우들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부부여서 몰입이 약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좋은 연기를 보여줘 고맙다”고 했다.

노씨는 부부 연극인이 좋은 건 ‘작품’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점이라고 했다.

“배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작품에 대한 분석이다. 늘 함께 작품에 대해 이런 저런 대화를 수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다른 배우에게는 조심스러워 하기

어려운 직연도 한다. 왜 그렇게 연기하느냐고도 하고(웃음) 딸이 이 연극을 보더니 왜 아빠 연기를 해야지, 생활을 해 하더라.”

‘발톱을 깎아도’는 6월 군산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에 광주대표로 참가한다. “이제 전국연극제에서 남녀 주인공만 따 오면 되겠다”는 덕담을 했다.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우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성에서’

‘천변만화하는 아름다움을 보이는 그대로 느끼다.’ 도립 전남옥괴미술관(관장 최준호)은 5월15일까지 미술관 아산1실에서 ‘송산 박문수 한국화전’을 연다.

박문수는 인물, 사물, 꽃, 풍물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진경산수 중심의 작품을 보여준다.

작품들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을 테마로 하고 있다. 고즈넉한 시골 풍경,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푸른 나무, 나무를 옮겨다녀며 지지귀는 새, 철마다 다르게 피어나는 꽃 등 길을 걸다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다.

특히 작품들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는 작가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사실적인 묘사 속에서 엿보이는 절제미와 여백 등은 자연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게 만든다. 고요한 전시장에 물소리가 울려 퍼지고, 살랑이는 바람이 꽃향기를 맡고 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영양 출신인 송산 박문수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 한국화특장전, 무등미술대전, 강릉서화미술대전, 허백련미술상 등에서 초대작가 및 심사·운영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1-363-727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버려지는 고문서, 지역사료 유출 진단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通&Asia’ 봄호 나와

인터넷신문 문화통이 발행하는 문화전문 계간지 ‘2014 문화通&Asia’ 봄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준공을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작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광주 지역 ‘민원경매장’의 이모저모를 살폈고, 힐갠에 버려지는 고문서와 근대사 유물에 대한 현장보고서를 실었다. 또 지역 사료들이 타지역으로 흘러가고 있는 문제를 전문가 진단으로 다뤘다.

‘차세대’에서는 “아니라요, 아니라요”라는 광고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국악소녀 송소희를 만나 앞으로의 꿈에 대해 물었고, ‘통발굴’에서는 오지호 화백이 일본 유학시절 고향에 보낸 편지와 그림엽서들을 발굴한 고서화 수집가 송부종씨를 만났다.

‘전남문화수수계’에서는 장성 황룡면 금호리에 있는 아무런 글이 새겨지지 않은 조선시대 선비 박수량 선생의 백비를 소개한다. 또 베트남을 112회 방문해 미술교류를 추진, 훈장을 받은 한·베미술교류협회 최창준 회장 인터뷰를 담았다. 이 밖에도 조용한 칼럼 등 기사가 실렸다. 문의 062-226-1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긍정의 힘’ 방영섭씨 행복콘서트

29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드컵스포츠센터

“한마디의 말에 인생이 바뀌고, 향기로운 말이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을 주네. 생각은 말로, 말은 행동으로,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 인격은 운명, 운명은 삶이 된다네..”

1985년 대학가요제 출신 방영섭(48)씨의 ‘긍정의 힘’ 노래 일부다. 2009년부터 재능기부 일환으로 ‘행복콘서트’를 기획·공연해오고 있는 그는 복지단체,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찾아 많은 이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해왔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월드컵스포츠센터는 29일(오후 2시~4시) 방영섭씨를 초청 행복콘서트를 개최한다. ‘웃음과 긍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행복콘서트에서는 삶을 얘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생활용품 등을 증정한다. 문의 1588-00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독립영화 감독들을 만나다

매달 마지막 목요일... 오늘 첫 초대손님 송민주 감독

광주독립영화협회(대표 백종욱)가 지역 감독들을 소개하는 ‘광주, 영화감독을 만나다’(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를 마련했다.

열악한 지역의 작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영화와 함께 하고 있는 젊은 감독들을 초대해 응원하는 자리다.

노씨는 고 3때 연극을 접했고 군대에 다녀온 후 드라마스튜디오에서 활동했다. 방송일에 집중하다 ‘의자는 잘못 없다’로 연

송민주 감독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송 감독은 고 2 때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차분히 풀어낸 ‘겨울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이후 서울 충무로 영화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다시 광주로 내려온 그는 꾸준히 단편 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좀처럼 제작하기 어려운 장편 극영화 ‘눈을 감으면’도 연출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번 행사의 상영작은 서울독립영화제와 인디포럼 본선 진출작으로 신산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어머니를 소재로 한 ‘당신’, ‘근’, ‘네모 위의 구슬’ 등 세편이다.

상영 전에는 송 감독의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으며 송 감독의 작품에 대해 비평을 했던 김우경 감독 진행으로 관객과의 대화도 열린다.

4월에는 지난해 화제작 중 하나였던 영화 ‘나는 홍어다’의 안소용 감독을 만난다. 문의 070-8236-18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문화카드로 장보는 날

올해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 총장모에서 ‘문화카드로 장보는 날’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2014통합문화이용권 카드(이하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마지막 토요일마다 ‘문화누리카드로 장보는 날’을 정기 운영한다.

이달에는 29일 오후 12시 총장모우체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문화누리카드로 영화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5000원 이상 결제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7000원 상당의 식권과 경품을 제공한다. 문의 062-670-7912~7. /이보람 boram@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